



대전시민천문대
최형빈대장

2001년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천문대로 문을 연 대전시민천문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천문대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이곳의 총책임자인 신입 최형빈 대장을 만났다.

“대전에 온 지 한 달 반 됐네요. 엇그제 온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빨라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세 분 있습니다. 13년을 함께 한 코스모피아 천문대의 이세영 사장과 한국천문연구원의 박석재 원장님, 전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태형 씨가 그 분들이죠. 제가 별을 보며 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고 이 길로 들어선 건 바로 이 분들 영향 때문입니다.”

최형빈 대장이 아마추어 천문에 입문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코스모피아 천문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았다.

“이세영 사장과는 한 직장 동료였습니다. 1989년에 처음 만났는데, 별에 관심이 많더군요. 그분의 소개로 아마추어 천문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던 이태형 씨를 알게 되었죠. 매주 모여 별 강의를 듣고, 관측도 다니면서 차츰 별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95년부터 천문대를 만들어보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96년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천문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97년에 코스모피아 천문대가 문을 열었습니다.”

코스모피아가 문을 열 당시에 국내에 사설이라고는 안성천문대 정도가 유일했고, 지자체 천문대는 전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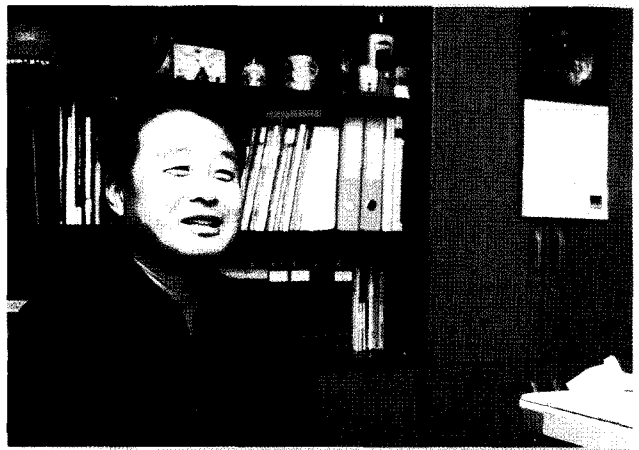
“처음 문을 연 97년에는 환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날도 정말 좋았고, 방이 없어 손님을 받지 못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가을에 IMF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주춤해졌죠. 그럼에도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잘 꾸려왔습니다.”

나름대로 잘 나가던 회사를 그만두고 천문대 운영을 한다고 하니 집에서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었다.

“싸우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돈 만을 생각했다면 이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그 당시 결정에 후회는 없어요.”

오랫동안 사설 천문대에서 생활했던지라 대전시민천문대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좋은 점도 있지만 변해야 할 부분도 보였다.

“새롭게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곳과 이곳이 성격은 다르지만, 사람을 대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천체투영실이나 돔에서 프로그램 시작할 때 인사하는 법부터 바뀌어나가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별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좀 더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서 진행하면 좋잖아요. 여기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저처럼 이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후회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으면 해요. 기존의 틀을 깨고 변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서로 많은 이해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전시민천문대는 도심에 있다 보니 관측 조건이 좋은 건 아니다. 코스모피아에서는 관측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좋은 관측 조건에서 별을 볼 수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좋은 하늘을 찾아 나서야만 하다.

“좀 더 좋은 밤하늘에서 별을 보고 싶은 직원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얼마 전 이들과 함께 관측을 갔어요. 별 보면서 좋아하는 거 보니 저도 기분이 좋더군요. 직원들이 즐거워야 방문객에게도 즐겁게 별을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은 별 보기 좋은 곳으로 관측하러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최 대장의 목표는 천문을 더 많이 보급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천문 강의도 새롭게 시작했다.

“처음 했는데 20여 명이 참석했더군요. 반응이 좋았어요. 앞으로 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좀 더 늘릴 계획이고요. 천문대에 와서 망원경으로 직접 달을 보고, 행성을 보는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고 보는 것과 보는 대상에 대해 알고 보는 것은 다르거든요. 오신 분들 중에 행성이 뭘 말하는지, 광년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천문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문을 연 지 7년이 넘어 노후된 전시실을 보강하기 위해 인근에 있는 중앙과학관에 전시물 대여를 타진해 놓은 상태이다. 과학관과 MOU도 계획하고 있다.

“천문동아리가 있는 중·고등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공동 관측회도 나가고, 천문대가 문을 닫는 밤 10시 이후에도 학생들을 위해 개방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카페도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분기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관측회도 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정체되지 않고 항상 살아 움직이는 천문대를 만들고 싶어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천문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구상하고 있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다고 한다. 그러나 관련 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한 것만은 아니다.

“각자 서있는 위치와 환경이 다르니 쉽게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뛰어야죠. 이곳의 인프라는 너무 좋습니다. 탐날 정도로... 이런 좋은 조건을 갖춘 천문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모피아 시절에 모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여기 왔던 학생 중에서 천문학자 한 명은 나오지 않겠느냐. 나는 천문학자가 못 됐지만, 이곳을 다녀간 학생 중에서 천문학자가 나오면 좋겠다.’ 하는 얘길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재바랍니다. 좀 더 좋은 천문대를 만들고, 좀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시민천문대는 월요일이 휴무일이다. 그런데 인터뷰가 있던 그 주 다음 월요일에는 임시 개관을 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멋진 천문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나는 그거 보고 싶은데 여러분은 보고 싶지 않나? 나도 보고 싶고 우리도 보고 싶은데, 우리만 볼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면 더 좋지 않겠나?’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시간을 낼 수 있는 직원만 자율적으로 나오기로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걸 그냥 많이 보여주고 싶고, 제가 알고 있는 걸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가족과 혼자 떨어져 있어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최형빈 대장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천직이라고 말한다.

“천문대 근무라는 게 늦은 밤까지 근무하고, 남들 쉬는 주말에 출근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일반인과는 상반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시간 내서 만나기도 힘들습니다. 그런데 친구 또래들보다 젊다는 소릴 많이 들어요. 십 몇 년을 공기 좋은 곳에서 별 보면서 살고, 매일 어린 친구들을 대하며 생활하다보니 마음도, 몸도 젊음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일반 회사원처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사무실에 앉아 있으라면 도저히 못할 겁니다.”

환갑 때까지는 이 일을 하고 싶고, 그 이후에는 혼자만의 작은 천문대나 별 카페에서 사람들에게 별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최형빈 대장. 앞으로 새롭게 변화될 대전시민천문대의 모습을 기대해본다.